

‘세계와 도시’ 창간부터 지금까지

2013년에 시작한 ‘세계와 도시’는 이번호를 마지막 이슈로 발간을 중단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주요 도시동향과 사례를 소개하고,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도시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5년간 총 22권의 계간지를 발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임원들을 위한 정보지로 창간되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정보지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관계 전문가,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비롯하여 서울시의 정책과 해외도시 정보,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심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세계와 도시’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서울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도시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국제교류 및 협력 활동이 확대되면서 국내의 유관기관과 서울시 국제협력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전문성과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와 도시’를 전반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디자인을 바꾸었고 역량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고 내용을 검토하고 제작 프로세스를 전문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시적 주제에서 보다 시의성 있고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기획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세계와 도시’ 어떤 주제를 다루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서울시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었고,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세계와 도시’ 창간부터 그동안 어떤 주제들을 다루어 왔는지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세계와 도시’에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연구원 내부 전문가를 비롯하여 많은 기관에서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문제와 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서울시에 알맞은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세계와 도시’의 취지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훌륭한 글을 보내주신 저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섹션에서는 2013년 창간호부터 23호까지 각각 기획된 원고 제목들을 모아 그동안 다루어졌던 주제와 도시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각 호별로 표지를 담아 어떤 모습으로 독자에게 읽혔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호별 목차와 표지는 지금까지 ‘세계와 도시’에서 다룬 주요 주제들을 상기와 관심있는 정보를 다시 찾는 데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